

안용주 선교사 가정 2026년 4월 선교편지

“이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장 33절)

불의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이듬비에 도 함께하십니다. (‘이툼비’ 영어식 발음 ‘이듬비’ 캄바족 발음)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갈릴리, 뵤엘 교회에서 예수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이어서 배터리를 사용하고 좋은 휴대용 스크린이 없어 우선 이불보를 이용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신기해하며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죽음 부활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가축사역> 이툼비와 무윙기 이 지역의 목사님 사례는 굉장히 적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최소 임금이 한달에 120불 정도이지만 목사님들은 30-40불 정도를 한달에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밭에서 일을 돕거나, 여러 일들을 합니다. 목회자를 위한 가축 사역도 진행해 저와 함께 사역하는 니고데모 목사님 룯 목사님 드리고 전도자인 사일러스 형제에게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사진은 NUU 시장에서 사일러스 전도자님과 염소를 구입하는 모습 그리고 룯 목사님이 염소를 받고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최근 발견한 마지막 사진은 1966년 호주 존 브라운 선교사님이 20 마리의 염소를 한국에 데리고 오는 모습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와 염소는 항상 함께 해왔던 듯합니다. :)

오늘은 사일러스 전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합니다. ‘전도자’는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역자입니다. 사일러스 전도자는 항상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기쁨이 가득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신학공부를 하고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생 전도자로 살 것이라 고백합니다. 와이프 레이첼과 세 아들 어니스트(8), 알파(5), 알버트(1)가 한 가족입니다. 집이 방 하나여서 한 공간에서 다섯 식구가 지내지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일러스 형제 집에 니고데모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심방하며 케냐 티‘차이’를 나누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후 막내 알버트는 제가 함께 놀자고 하니 울고 말았습니다. 제가 누굴 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아직 많이 어린 아이들은 가까이서 제 얼굴을 보면 100% 울고 맙니다. 놀아 주려다 또 울렸습니다. :)



<우물사역> 갈릴리 교회 근처 핸드 펌프 우물들이 말라 버렸습니다. 우기 바로 전, 가장 건조한 시기에 우물이 다 말라 버렸습니다. 정말 필요한 시간에 사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교회의 우물 사역도 70M를 파는 핸드 펌프 우물에서 150M로 들어가는 보어홀(BORE HOLE)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지역이어서 태양열 패널도 설치하게 됩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가장 물이 없는 시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스케줄 상 5월 말에 모든 설치를 마치게 됩니다. 6월부터는 귀한 물을 공급 받게 됩니다. 남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가정> 예진, 아진은 학교에서 하는 배구에 폭 빠졌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게임을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진도 친구들이 많이 생겨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더욱 더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기도제목>

1. 오랜 시간 준비해온 우물 사역이 5월말까지 문제 없이 잘 끝나도록 기도합니다.
2. 6월 초에 오게 되는 SMT 단기 선교팀 준비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3. 저와 와이프 예진 아진 유진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